



‘2004 한국리모델링 전시회’ 개최

국내 최초로 리모델링을 주제로 하는 ‘2004 한국리모델링 전시회’가 10월 12일에서 15일까지 4일간 코엑스 본관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쌍용건설이 단독 협찬하고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와 MBC 문화방송이 주최한 이 행사는 우리 회사와 현대리모델링, 동부건설 등 대형 건설사와 관련 기업들이 참가해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른 리모델링에 대한 홍보 및 신기술, 신소재 등을 소개하는 장으로 펼쳐졌다.

쌍용건설은 전시장 전면에 마련된 대형 전시공간에서 우리가 시공한 국내외 고급 건축물과 각종 리모델링 실적, 지난 8월 실시된 ‘제1회 쌍용 리모델링 학생 공모전’ 당선작 판넬과 모형 등을 전시해 일반 관람객, 학생,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모았다.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 수주

쌍용건설은 10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를 958억(쌍용 지분 100%)에 수주했다.

이번 공사는 정부가 품질향상과 가격경쟁 유도 의 일환으로 올 8월 개정해 시행중인 최저가방식 입찰 및 저가심의를 첫 적용한 대형 프로젝트로서, 쌍용건설의 폭 넓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변화된 최저가시장 경쟁에서 선취적인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 공사는 17번 국도(여수~웅인) 중 선형이 불량해 교통체증유발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매산리 구간에 총연장 9.51km의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교량 14개소를 포함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0개월이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수상

쌍용건설이 시공한 부천 상동 쌍용 스윗닷홈 (현장소장·양동섭 부장)이 10월 29일 경기도 건축문화상 주거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부천 상동 쌍용 스윗닷홈은 총 561가구 규모로 ‘자연을 가까이 느끼는 생활공간’을 테마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며, 단지 내에 마당마을, 빛의 광장 등 뛰어난 조경시설을 갖추고 있고, 지상에 차가 없는 데크시스템 및 보행자와 차도의 완벽한 분리 설계가 도입됐다.

또한 지난 2003년 7월에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주최한 ‘2003 살기좋은 아파트’ 선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고양시 종합운동장(현장소장·김홍태 이사)은 비주거부문 입선작으로 선정됐다.

특수 콘크리트 기술 설명회 개최

쌍용건설 기술개발부는 10월 27일 본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쌍용양회공업(주) 기술연구소 엄태선 박사를 초청해 ‘조강(早強) 시멘트와 저열(低熱) 시멘트를 이용한 특수 콘크리트의 특징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특수 콘크리트 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술개발부, 건축공사부, 토목기술부 등 관련부서 직원과 수도권 현장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엄 박사를 비롯한 연구원들의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당산 평화아파트 리모델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쌍용건설이 9월 4일 영등포구 당산동 3가에 위치한 평화아파트 주민총회에서 리모델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78년 건립된 17~34평형 3개동 총 284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향후 복도식 구조를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지하주차장 신설 및 내진 설계 적용 등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구체적인 면적 증가는 향후 주민 의견수렴 후 확정되며 연내로 건축심의와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 리모델링이 비강남권 서민 아파트에서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강북 및 수도권 서민아파트로 리모델링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쌍용건설은 국내 최초의 단지 전체 리모델링인 방배동 궁전아파트, 국내 최대 규모인 개포 공무원 아파트, 강남 재건축 단지 중 리모델링 전환 1호 사업인 도곡동 동신아파트 등을 연이어 수주한 바 있다.

세계 145위 건설사로 선정

쌍용건설이 세계 145위 건설사로 선정됐다. 세계적인 건설전문잡지인 미국 ENR誌(Engineering News-Record)가 발표한 세계 225대 건설회사 현황에 따르면, 우리 회사는 2003년 해외부문 매출 4,602만 달러를 달성해 145위에 랭크됐다. 우리 회사는 현재 인도 제3고속도로(Third National Highway)와 인도네시아의 마나도 우회도로(Manado Bypass Project), 수마트라 동부 해안 고속도로(Sumatra East Coast Highway) 및 한인 스포츠 교류센터(Korea-Indonesia Friendship Sports Center) 등 27개국에서 총 7,616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행 중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 회사를 비롯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한진중공업, 대우엔지니어링 등 6개 국내업체가 세계 225대 건설업체에 선정됐다.



방배 경남아파트 리모델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쌍용건설이 11월 4일 서초구 방배동 1028-1번지에 위치한 경남아파트 주민총회에서 리모델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80년 건립된 35, 53평형 7개동 총 45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복도식 구조는 계단식으로 변경되고, 지하주차장이 신설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면적 증가는 향후 주민 의견수렴 후 확정되며, 연내에 조합이 결성돼 내년 초 건축심의와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쌍용건설은 현재 서울에서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된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 중 21.1%를 진행하고 있어, 이 부문 업계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법전-소천 국도건설공사 수주

쌍용건설은 10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법전-소천 국도건설공사를 527억(쌍용지분 100%)에 수주했다. 이 공사는 경북 봉화군 법전면~소천면 사이의 기존도로 4.97km 구간을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하고 소천면 한동터널 구간을 우회하는 2.45km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교량 11개소를 포함한다. 지역 교통 체증 및 통행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건설되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경북 내륙지역의 물동량 수송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